

대승은 바로 '중생의 마음'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주제를 세우는 <입의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대승을 논한다. 대승을 두 가지 축으로 설명한다. 법(法)과 의(義)로 나누어 말하면서 법은 다름 아닌 중생의 마음을 법이라 하였다. 대승 자체가 무엇이냐 할 때 무엇이냐 하고 지칭되는 그 자체가 '법'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의'이다.

대승을 밝히기 위해 저술된 기신론에서 대승을 중생의 마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신론의 근본핵심이 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진여를 설명하면서 말하듯이 마음의 참되고 한결같은 진여의 모습이 바로 대승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또 마음이 생겼다 사라지는 생멸의 원인과 조건들의 모습도 대승 그 자체이며 동시에 그 모습이 드러나 작용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법인 마음이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거두어들이고 밝히고 있다. 세간법이란 시간과 공간적인 상황 안에서 인연에 의한 생멸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유품법이라고도 한다. 출세간법이란 세

간법의 반대다. 인연생멸을 초월해 있는 무위법의 경계이다. 다만 무위법 자체를 닮은 인연도 출세간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승의 의(義)를 설명하면서 삼대(三大)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삼대란 체대(體大), 상대(相大), 용대(用大)로 바탕이 되는 본체와 모양 그리고

<입의분>서 대승 대해 논해

참된 진여의 마음이 곧 '대승' 망념 떠나면 차별심은 없어져

그 작용 말하는 것으로 이 셋이 무한히 크다는 것을 밝히면서 쓴 말이다. 기신론의 전체 내용의 줄거리를 파악해 말하면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 사신(四信), 오행(五行)으로 요약된다. 여기가 염불수행을 권하여 육자(六字)를 덧붙이기도 한다.

대승인 중생의 마음 일심에 진여문, 생

멸문 두 문을 열고 진여의 체, 상, 용을 삼대로 설명하고 믿음의 대상을 삼보 앞에 진여를 바로 생각하는 신근본(信根本)을 두고 이어 삼보를 믿는 네 가지 믿음을 말한다. 그리고 수행 덕목인 육바라밀을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어 지관(止觀)으로 줄여 오행으로 말하고 있다. 육자란 '나무아미타불'의 여섯 자를 말한다.

마음의 본체가 일체의 사물과 더불어 있으며, 그것은 영원하고 무한하여 절대 평등한 것이며 언제나 한결같아 느는 일도 줄어드는 일도 없기 때문에 모든 차별을 떠나 있는 것을, 본체가 크다는 체대로 설명이 된다. 또 마음이 여래를 갈무리하고 모든 일을 성취하는 공덕을 갖추고 있다 하면서 이것이 마음의 본래 크고 큰 모습이라 하여 상대라 하고, 다시 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좋은 원인과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작용을 용대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마음은 삼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대승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중생을 실어 열반으로 운반해 주는 큰 수레며, 부처님과 보살이 이 수레를 타고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한다는 것이다.

<해석본>은 기신론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먼저 마음의 진여는 '한 법계의 모든 것이 크게 어우러진 법의 본체라고 하면

서 마음의 성품은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음을 밝힌다. 일체 법은 오직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을 뿐이라 하였다. 만약 망념을 떠나면 일체 객관경계에 나타나 는 차별의 모습은 없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일체 법 곧 모든 존재자체는 말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마음에 관계된 조건의 상태도 없는 것이라 마침내 어떤 차별도 보이지 않고, 변하거나 달라지는 일도 없다. 오직 부처지지 않는 한 마음 뿐이다. 이것을 진여라고 한다. 일법계대 총상법문의 체라는 본문의 말을 빌려 기신론 법문을 요약해 대총상법문이라 일컬어 오기도 했다.

총상(總相)이란 일미평등(一味平等), 차별의 모양을 여의는 것을 말한다. 영원하고 무한하고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하자면 모든 것을 내포한 총상이요, 만법의 근원이 되는 법이요, 모든 것이 현상으로 전개되어 나올 때의 문이며 또한 바탕인 것이다. 다만 생가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심성 자체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절대 경지인데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게 되었다.

망념이란 미혹의 생각으로 여실한 참이치를 모르는 착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묶든 마음 곧 염심(染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게

예전 장수하는 노인들은 보약을 먹거나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다.

매일 매일 습관처럼 호미나 괭이를 들고 들에 나가 일을 했을 뿐이다. 틈이 나는 대로 잡초 뽑는 일을 하였고, 허드렛일을 찾아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던 것이다. 그들 장수 노인들에 있어 부지런함은 보약이었고, 힐링이었으며 장수 비결이 되었던 것이다. 장수 노인들은 한결 같이 규칙적인 식사에 소량의 음식을 섭취하며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이웃 돌봄과 나눔을 생활화 했던 것이다. 이들은 종교를 모르나 종교인이었고, 신앙을 모르나 신앙인이었다.

종교·신앙의 목적은 보다 나은 행복과 열린 자유에 있을 터인데, 이들 장수 노인들은 주어진 생활여건에 순응하며 게으름을 병으로 알아 부지런한 삶을 엮어왔기 때문이다.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 양분되어 있으나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면 어둠속에서도 빛

도 상 차리는 일도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지 스님은 끼니때마다 대중과 별도로 독상을 차지하며 작은 공화국의 군주처럼 대접 아닌 대접을 받게 된다.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소소한 기쁨, 마당 쓸고 바느질하는 잔잔한 만족, 대중들과 어울려 한상에서 함께 식사를 즐기는 여유로움.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면 몸도 마음도 가뿐해지고 개운한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불교TV에 나오는 몇몇 스님처럼 모시옷을 위아래로 걸치고 거기가다 천연 실크장삼에 가사까지 입고 부끄럼 없이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서글픈 마음에 안쓰러운 생각마저 일어서게 된다.

수행자는 누구나 검소해야 하고 시은(施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청빈이 생활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돌 안경에 금테 두른 안경을 낀 스님이 있다고 하자 그에게 어찌 수행자로써 돋보이는 모습일 수 있겠는가? 끼니때가 되어 어느 저자거리의 식당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의 유훈 게으름 없는 정진은 수행자의 덕목

을 보고 빛으로 충만해 불평·불만의 권태로움이 녹아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 '진리의 등불(法燈明) 마음의 등불(自燈明)'로 스승을 삼으라는 말씀과 함께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유훈을 남기신다.

수행자에게 있어 게으름은 병이요 방일(放逸)은 나태의 늪으로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는 자세에는 하심(下心)하는 수행덕목이 수레의 두 바퀴가 되고 새의 두 날개가 되어 짝을 이룬다. 수행자가 거드름 피우며 잠깐에만 방질을 찍어 무거운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는 쫄쫄거리고 여러 겹의 인격체를 지닌 부끄러운 수행자다.

부처란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와 함께 '임제록'에서 만날 수 있는 참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느 사찰이 있다고 하자, 대계가 그 사찰의 구성원 중 밥 짓는 공양주가 있고, 마당 쓸고 허드렛일을 하는 부목 처사가 있으며 법당의 의식을 관장하는 부전 스님도 있게 된다.

하여, 주지 스님의 빨래도 바느질

에서 스님을 만났다고 하자. 그 스님은 당연히 먹거리를 약으로 알아 소시민이 즐기는 부끄럽지 않는 메뉴의 식사를 하여야 한다. 거대한 음식 차림을 당연히 비껴가야 하고, 부족함이 넘치는 것보다 아름답기 때문이다.

언급하는데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나, 나의 도반들 몇몇은 전화를 걸면 직접 받지 않는다. 시종드는 스님이 받거나 담당보살이 받아 용건과 전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전화를 바꾸어준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고 나름대로 이유도 있겠지만 이쯤 되면 수행자의 삶이 번거로운 게 뻔한 이치이다. 수행자의 삶은 열려 있어야 한다.

베일에 가려 있거나 낮과 밤의 그림자가 다를 수 없는 것이다. 겸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드름 피우며 속물화되는 부끄러운 풍토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기적이다. 수행자의 주머니는 비어 있어야 마땅하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정진함이 당연한 덕목임을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한다.

범본 10만 계송 전래한 구법승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③ 번역자 북량의 도태 스님은?

北凉沙门道泰譯(북량사문도태역)

번역 북량 사문 도태(道泰)가 번역하였다.

해설

여기서 사문(沙門)이란 용어는 출가 수행자를 의미한다. 지금은 출가승을 통칭해서 사문이라 부르지만, 원래는 초기불교 시대 B.C.5~3세기 무렵 인도의 전통적 종교지도자인 바라문에게 대항하는 새로운 정신적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었다.

사문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미 시대의 혁신적 사상가들의 총칭하여 부르던 말이기도 하다. 이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두루 돌아다니며 숲 속에서

수행하고, 시골이나 도시로 가서 가르침을 설하며, 설법의 보수로 보시 받은 음식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자 종교적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공동체를 승가(samgha)라고 불렀다. 불교의 승가(僧伽)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파미르 고원 다니며 구도행

논장 漢譯에 높은 식견 보여

인도의 종교지도자로서의 바라문은 혈통의 순수성을 주장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사문의 공동체는 신분을 묻지 않고 그 출가를 인정한 것이 특징이다.

예로, 인도 자이나교의 개조(開祖)가 바라문 혈통이 아닌 귀족 혈통의 크샤트리아 출신이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크샤트리아 출신이었다.

다음으로 <대장부론(大丈夫論)>은 북량사문 도태(道泰)가 번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북량(北凉, 397년~439년)은 중국 오호십육국시대 감숙성(甘肅省)에서 건국된 나라이다. 초대 왕은 단업(段業)이지만, 실질적인 창업자는 흉노계(匈奴系) 노수호족(盧水胡族)의 저거몽손(沮渠蒙孫)이다.

<고승전권제삼(高僧傳卷第三)>에 도태(道泰)에 대해 간략히 기록한 것이 있는데, 찾아서 원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사문 도태(道泰)가 있었으니, 뜻이 굳세고 과단성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총우(苴, 파미르 고원)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다. (비바사(毘婆沙)) 범본(梵本) 10만여 계송(偈頌)을 얻어 가지고 고장(姑臧)으로 돌아왔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비운 채, 눈

밝은 장인을 발돋움하고 기다렸다. 부타발마가 이 눈을 공부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번역할 것을 청하였다. 그 당시 저거몽손(沮渠蒙孫)이 이미 세상을 떠나, 그의 아들 무건(茂健)이 왕위를 물려받았다. 무건이 재위에 있던 승화(承和) 5년(437) 정축년 4월 8일, 곧 송나라 원가(元嘉) 14년(437)에 양주성(涼州城) 안에 있는 한예궁(閑豫宮)에서 부타발마를 청하여 번역하였다. 도태가 붓으로 받아 적고, 사문 혜승(慧嵩)과 도량(道朗)이 교리를 공부하는 승려(義學僧) 3백여 명과 더불어, 문장의 뜻을 바로잡기를 거듭 두 차례나 하여 비로소 마쳤다. 모두 1백 권이다. 사문 도연(道撈)이 서문을 지었다. 얼마 후 위(魏)나라의 오랑개 탁발도(託跋鞞)가 서쪽으로 와서 고장(姑臧)을 정벌하였다. 양(凉)나라가 멸망하는 난리통에 경서와 온갖 집물들이 모두 불타버려서 40권이 따라 소실되었다. 오늘날에는 60권만 남아 있을 뿐이다. 부타발마는 난리를 피하여 서역으로 돌아갔으며, 임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잡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 작품크기 20cm×30cm (액자전체 50cm×40cm)
- 16나한들의 내력파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첩을 드립니다.
- 촬영상의 한계로 선이 검게 나왔으나 실제로는 99% 황금색임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cm×30cm (액자전체 50cm×40cm)
- 청국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작 품 가 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 128,000원 (액자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 78,000원 (액자포함)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입니다. 황용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나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한국국호불교 소림선종 방장인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인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진품 소림 달마도



황금순금 나한도 작품 (확대)



진품 소림 달마도 작품 (확대)